

역대 고승들 통해 본 가야산 해인사 1219년 역사

법보종찰 가야산 해인사(주지 현응 스님)가 개산 1219주년을 맞아 불교를 빛내고 나라에 공헌한 해인사 스님들을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해인사성보박물관은 10월6일부터 내년 4월10일까지 관내 특별전시실에서 ‘불교를 빛내고 나라에 공헌한 해인사 스님들’ 특별전을 개최한다. 해인사는 신라 애장왕 3년(802) 화엄종주(華嚴宗主) 의상대사의 법손인 순응 화상과 제자인 이정 화상이 화엄의 가르침을 퍼기 위해 세운 화엄십찰(華嚴十刹) 중 하나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긴 세계문화유산 고려대장경을 600년 넘게 보전해온 법보종찰이며 고고한 수행가풍이 면면히 이어져 온 청정수행도량이다.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해인사에는 수많은 고승들의 업적과 원력이 곳곳에 남아있다. 특별전에는 802년 창건부터 1945년 해방까지 해인사에 주석했거나 연관된 선지식 가운데 시대의 주체에 따라 선정한 16분의 진영과 관련 유물들이 소개된다. 해인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역대 조사스님들의 활약과 공덕을 기리고, 한국불교사에 남긴 위대한 업적을 널리 선양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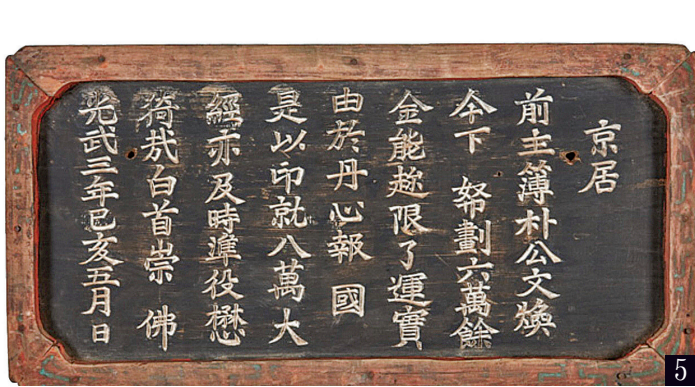
전시는 ‘해인사 화엄도량의 문을 열다’ ‘대장경판 조성과 우리말로 번역하여 대중에게 전하다’ ‘한국불교의 법맥을 이은 고승들, 호국애민의 자비를 펼치다’ ‘화엄의 가르침으로 교학을 펼치다’ ‘한국불교의 선풍을 중흥하고 근대화를 열어가다’ 등 5부로 구성됐다. ‘해인사 화엄도량의 문을 열다’에는 개산조 순응·이정 두 조사와 고려 태조 왕건의 스승이자 해인사를 중창한 희랑대사를 만날 수 있다.

불교를 숭상한 고려는 외세의 침략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고자 방대한 대장경 간행사업을 추진했다. 대장경판 조성과 우리말로 번역하여 대중에게 전하다’에서는 고려대장경의 초석을 다진 ‘신편제 종교장총목’을 간행하고 천대교학을 창종한 대각국사 의천, ‘팔만대장경’ 조성 불사를 총괄한 수기 스님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한글 창제에 크게 공헌하고도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에게 그 공로를 양보한 신미, 세종 때 시작됐다 중단된 ‘증도가법명게송’ 번역과 해인사 중수 및 대장경 판당을 중창한 학조 대사에 대해 이야기한다.

민족의 대전란 임진왜란의 비극을 맞아 교단의 구성원들은 불살생과 자비실천이라는 시대의 화두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결국 많은 스님들이 자비실천과



1) 해인사에 기반해 불교를 빛내고 나라에 공헌한 고승 16분의 진영. 2) 보물 ‘해인사 중수기’, 1490년. 3) 사명대사가 선조 임금에게 하사받은 것으로 전해지는 ‘봉황칠보촉대’, 조선시대. 4) 이정·희랑·순응 삼화상 진영. 5) 팔만대장경 인경 현판, 1899년.



2) 보물 ‘해인사 중수기’, 1490년. 3) 사명대사가 선조 임금에게 하사받은 것으로 전해지는 ‘봉황칠보촉대’, 조선시대. 4) 이정·희랑·순응 삼화상 진영. 5) 팔만대장경 인경 현판, 1899년.

해인사성보박물관 ‘불교 빛내고 나라에 공헌한 해인사 스님들’

창건서 해방까지 해인사 주석 선지식 16명 진영·유물 등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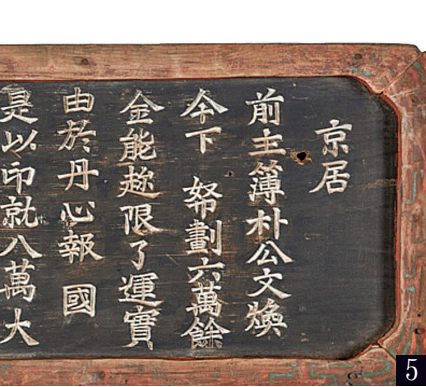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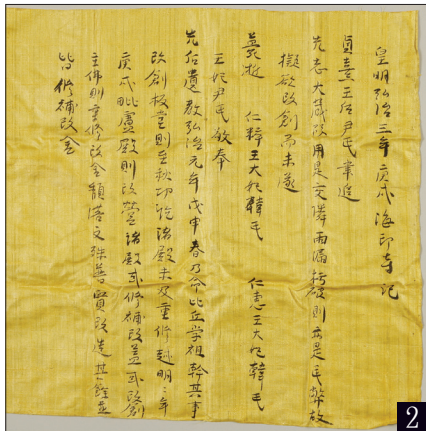
현응 스님 “해인삼매 뜻 새겨 평온한 바다처럼 마음 편해지길”

호국불교의 기치 아래 승병을 결성해 민족을 구제하고 전장에서 맹위를 떨쳤다. ‘한국불교의 법맥을 이은 고승들, 호국애민의 자비를 펼치다’에서는 사명, 백암 등 승병장들의 면면을 전한다.

일찍이 화엄도량으로 개산한 해인사에는 많은 스님들이 화엄학을 중심으로 공부하며 좌선에 힘쓰고 후학을 양성했다. ‘화엄의 가르침으로 교학을 펼치다’에는 총선으로 임명돼 표창사를 수호하며 후학들에게 화엄학을 지도했던 해봉 스님과 해인사를 중창하고 ‘화엄경소초’ 등 80권본을 복각해 영가사 경판각에 봉안했던 설파 스님의 유물이 전시된다. ‘한국불교의 선풍을 중흥하고 근대화

를 열어가다’의 주인공은 경허 선사와 용성 스님이다. 한국 선불교 중흥조 경허 선사는 인경 불사와 수선사(修禪社) 불사의 법주가 되어 해인사에서 ‘해인사 수선사 방합인’과 ‘합천군 가야산 해인사 수선사 창건기’를 집필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용성 스님은 조선의 독립과 불교 개혁에 앞장섰던 선각자다. 일제가 민족불교를 말살시킬 목적으로 대처승 중심의 교단을 조정하자 대각교를 창립해 한국 전통불교 수호에 나서는 한편, 불교개혁을 통해 불교 근대화와 대중화의 기틀을 확립했다.

해인사성보박물관장 직광 스님은 “오늘날 해인사의 위상과 영광은 수많은 선



2) 보물 ‘해인사 중수기’, 1490년. 3) 사명대사가 선조 임금에게 하사받은 것으로 전해지는 ‘봉황칠보촉대’, 조선시대. 4) 이정·희랑·순응 삼화상 진영. 5) 팔만대장경 인경 현판, 1899년.

지식들의 지고한 원력과 헌신적 삶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기에 개산 1219주년을 맞아 역대 선지식들의 발자취를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인류 문명의 발전 속에서 한국불교가 어떠한 전법교화를 펼칠 것인지에 대한 화두는 역대 선지식들의 시대 변화에 대한 앞선 진단과 해석, 그리고 적극적인 현실 참여와 도전 정신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1200여년의 기나긴 세월 속에 해인사의 수많은 고승 대덕 스님들의 범행 가득한 가야산 산전에도 어김없이 가을이 찾아왔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해인삼매의 뜻을 되새겨 고요한 바다에 삼라만상이 비치듯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번뇌와 망상의 파도가 멈춰 평온한 바다처럼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기원한다”고 이번 특별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네팔 출신 구룡시타씨에 500만원

조계사·화계사·법보신문 이주민돕기 공동캠페인

일일시호일, 9월30일 전달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 스님)와 법보신문 공익법인 일일시호일(대표 김형규)이 9월30일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구룡시타씨 부부에게 500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2021년 8월25일~9월30일 법보신문 보도를 통해 사연을 접한 동해선원과 김진희 불자의 기정기탁을 포함 독자들과 전국 불자들이 정성으로 보내온 금액 중 일부다. 직장암 수술을 받은 구룡시타씨는 불자들의 후원으로 병원비 걱정을 조금 덜 수 있게 됐다. 구룡시타씨는 항암치료를 전달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유선으로 감사인사를 전했다. 모금계좌는 301-0189-0372-01 (사)일일시호일. 070-4707-1080

김민아 기자 kkkma@beopbo.com



CMS 유수아 △오오윙 △김정숙 △박수자 △지성 스님 △정지은 △선공 스님 △(주)인서정공 △박종길 △이현미 △양원준 △이세용 △하정희 △윤태임 △봉덕사 △오갑사 △김택근 △덕문 스님 △정혜경 △공공승관 △강병관 △이상호 △한명우 △김연희 △황은희 △김민정 △이연심 △김현우 △김안기 △주민정 △정미자 △민정화 △이봉숙 △윤승환 △남배현 △박연희 △김정호 △정미자 △조일원 △김선근 △조기통 △도신 스님 △권오중 △임석규 △제이엘케이뮤니케이션 △김병주 △김나연 △정철기 △박현식 △김정대 △박민영 △김종현 △이유숙 △이선목 △최효임 △모영자 △이은주 △방종혁 △김해덕 △김지수 △김성우 △김연구 △변재덕 △박춘자 △정창규 △송용호 △김용구 △김규태 △고인숙 △김시영 △남궁정임 △유석근 △강태희 △변진환 △권진일 △송정연 △김정미 △이수임 △보현정사 △이항화 △신귀자 △구민정 △김전희 △이형자 △지현 스님 △최진옥 △전병룡 △김종훈 △정철진 △정소정 △이종숙 △남지선 △김미정 △전상숙 △유향옥 △성관 스님 △묘장 스님 △김형규 △유종근 △유영임 △김선희 △정재현 △임성숙 △박마숙 △박유진 △김광우 △송남재 △한윤정 △박정주 △서형순 △이현드림 △성숙경 △안수명 △재마스님 △이송재 △김경자 △김태경 △유연숙 △임춘자 △권오문 △이영자 △정윤숙 △전금순 △박래홍 △박남주 △조선화 △윤해영 △김금강심 △이수자 △무원 스님 △전지민 △김승경 △조경락 △불갑사 △만당 스님 △김미라 △박성순 △송순덕 △정예일 △최정숙 △박정숙 △박정숙 △오자영 △김우갑 △김현숙 △우준태 △오세빈 △이승혜 △신용훈 △이영식 △김성호 △해원 스님 △이여진 △김보상 △박순호 △중호 스님 △윤성문 △최승준 △박병중 △최규홍 △신명희 △황수경 △박경숙 △김동수 △하지권 △주순화 △정용철 △정유제 △정상립 △박형숙 △이순애 △강현진 △김은성 △김경규 △김윤수 △이강인 △이재형 △윤태운 △조영식 △문경미 △박병태 △정암 스님 △혜안 스님 △김현덕 △윤경원 △김부연 △곽민경 △강민승 △순지희 △정혜림 △박소영 △박기순 △문병일 △허광무 △이경재 △김정숙 △이필원 △정효은 △이원찬 △김호준 △김자동 △전상삼 △이미혜 △김덕와 △전승진 △김은혜 △최주현 △김원모 △김영현 △주수환 △임은호 △박해진 △최진숙 △김연희 △김규보 △채한기 △오순여 △노훈 △조윤영 △송종일 △박산묘각사 △강설자 △김지순 △최진아 △해랑 스님 △주영미 △남수연 △권오영 △심정섭 △최호승

“공간·시대 변해도 연기법 그대로 적용”

진흥원, 법장 스님 초청 화요강좌

“미래의 행복한 삶은 나로부터”

“삶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산·구·의로 짓는 업은 선업과 악업이 있으니 선인낙과와 악인고과는 여러분의 선택에 기인합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이 9월28일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해인사승가대학장 법장 스님 초청 화요일강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신청으로만 진행된 강의에서 법장 스님은 직접 번역한 사사키 시즈카 교수의 ‘인터넷 카르마’를 중심으로 관계성, 즉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이 온라인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의 삶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됐습니다. 대학의 강의가 화상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영상 플랫폼에서 보고 싶은 동영상 찾아보고 뉴스도 미디어로 봅니다.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에 세상이 중심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는 가상현실 개념이 크게 떠올랐습니다. 데이터로 이루어진 세상이지만 주목할 점은 그곳에서도 원인과 결과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스님은 예시로 기록을 꼽았다. 정치



인을 비롯한 운동선수, 연예인 등 모든 사람의 행적이 인터넷에 기록으로 남았고 그것이 원인이 돼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스님은 “부처님께서 이미 이에 대한 가르침, 연기법과 인과를 우리에게 설명해주셨다”며 “공간과 시대만 바뀌어 있을 뿐 선택의 티켓은 여전히 우리가 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깨끗한 삶도, 더러운 삶도 거에서 스스로가 만들어냈으니 미래의 청정함도 현재의 ‘나’에게 달려있다”며 “연기법을 깊이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자연스레 행복한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적인 불교 교단사이자 계율 연구자인 사사키 시즈카 교수의 ‘인터넷 카르마’는 IT시대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부분을 불교사상과 대비해 살펴보는 책이다.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업의 무서움과 그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현대의 유효한 삶의 지침이 되리라 제안하는 것이 목포다.

윤태훈 기자 yth92@beopbo.com

제주불교 중흥 이끈 봉려관 스님 왜곡 바로잡는다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 10월16일

법정사, 봉려관 새 연구 성과 소개

근대 제주불교 중흥의 초석을 세웠으며 독립운동에도 앞장선 봉려관 스님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화일운동을 위해 세운 법정사에 대한 새로운 연구성과는 물론, 스님 생애 가운데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행적도 처음 소개돼 기대를 모은다.

(사)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이사장 효덕 스님)은 10월16일 오후 1시부터 호텔

휘슬락 제주 2층 세미나장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근대제주불교역사 그리고 그 진실을 찾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는 봉려관 스님 행적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고 근대 제주 불교역사에 대한 연구 지평을 넓히고자 마련됐다.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장 해탈 스님의 인사말과 김상웅 전 독립기념관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학술대회가 시작되며 안후상 노령역사문화연구원 이사장이 ‘법정사 항일항쟁 연구-보전교를 중심으로’를, 이상수 불교신문

기자(동국대 문학박사)가 ‘근대 제주불교와 봉려관 연구-일제강점기 언론보도를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사회는 김진희 사단법인 탐라성보문화원 기획부장이 맡았다. 이어 허남춘 국립제주대 국문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해탈 스님과 제주 쌍계암 상민 스님, 심옥주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장이 나선다.

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장 해탈 스님은 “이번 학술대회는 근대제주불교 진실을 찾는 첫 여정으로, 다양한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며 “토론과 분석을 통한 철저한 검증으로 근대 제주불교의 본모습을 찾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주연 기자 jeongjy@beopbo.com

나눔의집 임시이사회, 의결 정족수 재적 과반으로

9월27일 임시이사회서 결정

신임감사에 우봉 스님 추천

나눔의집 임시이사회가 의결 정족수 기준을 출석이사 아닌 재적이사 과반 동의로 변경했다. 이는 ‘이사회 개최 및 의결 정족수’ 관련 현행 정관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임시이사회는 또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감사에 호암사 주지 우봉 스님을 추천했다.

나눔의집은 9월27일 나눔의집 교육관에서 제7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개최 및 의결 정족수’와 관련한 현재 정관의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유권해석을 통해 이를 바로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참석 이사 과반수 동의를 필요했던 의결 정족수를 재적이사 과반으로 변경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법인, 시설, 역사관 1차 추경예산안 △추진감사 선임의 건 △지

원수당 및 미지급금 관련의 건 △통합은영규정 개정의 건 △이사 사임 건 △정식이사 선임 건 △2021년 법인 및 산하시설 예산 심의 등 7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나, 4월에 열린 임시이사회 소집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가 또다시 제기돼 모든 안건을 차기 이사회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감사 2인에는 6차 임시이사회에서 연임 감사로 추천된 호련 스님이 거절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호암사 주지 우봉 스님이 새로 추